



필리핀 경주불국사 포교원 피나투보 봉사 현장

작은 정성이 큰 기쁨으로...

지난 10월 1일 새벽 4시 필리핀 수도 마닐라 시내에서 출발, 10여 시간을 자동차로 달려 도착한 피나투보산 아래 마을 바람가이. 기계 문명을 일부러 외면이라도 한 듯한 바람가이는 이국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낭만적인 마을이 아닌 세상과 외떨어진 산 밑에 대종 꾸러진 농촌이었다.

전력시설이 아예 없어 해가 뜨는 낮 이외에는 사람이 거의 식별 할 수 없기 때문에 필리핀 경주불국사 포교원(주지 법관) 봉사팀 10여명은 서둘러 낮에 이 마을에 도착했다. 의료 혜택은 고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마땅치 않은 이 곳 주민들에게 보시행을 펼치기 위해서다.

국민의 70% 이상이 가난에 허덕이는 이 나라에서 하필 이들은 왜 이 곳을 택했을까? 우선 궁금했

다. 이유는 이랬다. 1991년 6월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해 산의 절반이 날아갔다.

50억톤에 달하는 용암이 흘러내려 이 일대를 폐허로 만들었다. 이 화산 폭발로 4만호의 가족이 잿더미로 변했다. 3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, 9000여명이 숨졌다.

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, 이재민들은 산 아래 풀이 나는 곳을 찾아 움막을 짓고 마을을 형성하며 근근히 살아간다. 필리핀에서 가장 빈민층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.

그래서 봉사팀은 매월 1-2회씩 이 곳을 찾는다. 마을을 산을 중심으로 10여 곳 이상이 형성돼 있다. 요즘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라 계곡을 건너가야 되는 마을은 물이 많이 불어나 찾아갈 엄두도 못낸다.

이날 봉사팀은 며칠 전 불어 닦친 태풍 때문에 길이 없어져 도로 사정이 그나마 좋은 바람가이 마을을 행선지로 정했다. 도로 사정이 좋지만 마을 아래까지만 차가 갈 뿐 그 곳에서 20여분 산길을 걸어 올라가야 마을이 나왔다.

봉사팀이 마을에 도착하자 이들을 기억하는 듯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어린이와 청년 몇 명이 달려 오더니 차에 있던 구호품들을 산 위 마을로 나르기 시작했다.

잠시 후 마을 중앙에 봉사캠프를 차린 봉사팀 앞에 여기저기 산 아래 흩어져 있던 마을 주민 100여 명이 순식간에 환호성을 지르며 물러들었다. 외부에서 누가 찾아오면 이들 나름대로 비상 연락망이 있다고 했다.

〈B2면에서 계속〉

"현대불교신문사 창간 **B** 주년 을 축하합니다."

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(株)坪建 이 열어드립니다

시공분야
고건축 [사찰건축] | 현대건축 |
인테리어 | 건축 및 불사 컨설팅

(株)坪建
TEL 02)722-0094 / FAX 02)741-0096
http://pyeonggeon.com
E-mail: pg@pyeonggeon.com

